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 농생명산업수도 위상 확립 '한걸음'

###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 중기부 심의 거쳐 내년 4월 최종 결과 발표

###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K푸드 글로벌화 기대

### 전북TP 등과 킷오프 회의... 최종 지정 준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세부 실증 사업 보완, 특구사업자 모집, 규제신속 확인 등 과제 상세 기획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중기부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심의 및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특구는 전북을 포함한 경북·광주·대전·울산·전남·제주에 해당하며 이중 3곳을 최종 선정, 최종 선정된 3곳에는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되면 기능성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 기능성식품 소재 상품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와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미래 농식품산업 신모델이 결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이 될 것이며, K-푸드 글로벌화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1·2단계), 기회발전특구(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의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와 연계해 기능성식품의 기술투자와 기업을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가치사슬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종 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Kick-off회의(9월 27일)를 시작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그간, 시도된바 없는 새로운 아

이템으로 이번 기능성식품 후보특구 선정으로 농생명산업수도 위상 확립에 한걸음 다가갔다"며, "전북 농생명 산업을 견인하고, 국가 기능성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기능성식품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39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전북지역은 친환경자동차특구(2019년), 탄소융복합특구(2020년)가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신규 후보특구 선정 대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9개 혁신기관과 전략산업분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여부 검토를 거쳐 규제를 발굴해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협업을 통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기능성식품을 그린바이오 핵심전략으로 육성하고 있고, 기능성식품 산업은 초고령사회 도래 등 건강 관심증가로 수요급증, 고부가식품·약품산업 등전후방 연계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신산업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10월 1일 국군의날에 따라  
신문은 2일 발행합니다.



지난 26일 저녁 8시, 전주 천변에서 '자율순찰로봇 현장 시연'이 진행됐다. 자율순찰로봇은 인공지능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가 결합돼 있고, 이상 상황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이날 현장 시연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했다.

## 전주 천변에 나타난 자율순찰로봇 | 전북, 치안 혁신 '시동'

### 자경위, 내년 도입 목표로 현장 시연 주관

### 인공지능 등 결합... 이상 상황 즉시 감지 가능

### 치안 취약지 안전 확보 시도로 사각지대 해소

전주의 밤, 가을바람이 부는 전주 천변에 작은 로봇이 등장했다. 상인 무릎 정도 높이의 자율순찰로봇이 천천히 강변을 따라 움직이며 눈에 띄지 않는 무언가를 탐지한다. 이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자율순찰로봇 현장 시연'에서 선보인 최첨단 치안 기술의 일환이다.

지난 26일 저녁 8시, 전주 천변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둠이 깔린 강변을 무심히 지나가는 이들에게 로봇의 움직임은 낯선 광경이다. 하지만 이 로봇은 정확하게 치안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심 속 산책공간으로 이용인구가 많으나 방범시설이 따로 설치돼 있어 치안 취약지로 꼽혀왔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용 CCTV와 조명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시연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자율순찰로봇은 인공지능(AI)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가 결합되어 있다.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갈대밭 사이로 무언가 이상한 징후가 포

착되면 곧바로 경고음이 울리거나 관계센터로 정보가 전송된다. 특히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움직이며 날씨, 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현장을 지켜보던 자치경찰위원회 이연주 위원장은 "로봇이 이동하는 모습이 안정적이고, 예상했던 성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자율순찰로봇이 전북의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시연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주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영역의 일환이다. 연구책임자인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 천변을 비롯해 방범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며, "특히 밤 사이로 무언가 이상한 징후가 포

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순찰로봇은 천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주변, 원룸 밀집 지역 같은 치안 취약지에도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번 시연을 통해 로봇 치안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기에 밤에는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로봇이 있으면 좀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 전주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뉴빌리티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뉴빌리티는 국내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켰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로

봇이 순찰뿐만 아니라 향후 배달, 경비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전주에서 열린 이번 시연이 향후 자율주행 로봇의 치안 적용 가능성을 증명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어둠 속에서 순찰을 마친 로봇이 천천히 임점으로 돌아왔다. 자율순찰로봇은 한번 충전으로 8시간 동안 순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일정 부분 배터리를 소모하면 자동으로 충전시설로 복귀해 자체 충전할 수 있다. 이날 자율순찰로봇이 수행한 임무는 비록 시연에 그쳤지만, 그 가능성은 확실했다. 전주 천변에서의 이 시연은 자율순찰로봇의 도입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첨단 기술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갈 미래가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순찰로봇을 오는 2025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전북경찰청, 전주시와 함께 행정·재정적 역할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10월 9일은 '한글날'... 전주대 국어문화원,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공연장에서 '2024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문화를 가꾸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총 3개의 대화와 학술

### 한글문화 체험 마당 등 구성

발표, 한글문화 체험 마당,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받아쓰기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하는 유학생들은 우리말 상식과 한국의 문화, 전북의 역

사 등에 관한 단어와 문장 등을 써보며 국어능력의 향상은 물론, 전북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늦깎이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성인문해학습자 한자 사랑 편지쓰기 공모전'과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자 체험 후기 공모전'도 펼쳐진다. 두 공모전 모두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된 뒤 행사 당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어린이교향악단과 전주 기점놀이 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더하고, 한글문화 체험 마당에서는 한글 열쇠고리 만들기, 한글로 꾸민 마키몽, 나만의 연필 꽃이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www.ju.ac.kr/korea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딩동! 초대장이 왔습니다!

# 2024 진안홍삼축제

## 2024 Jinan Red Ginseng Festival

2024. 10. 3.(목)~10.6.(일)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어린이공연

- 베베핀 싱어송스 · 캐리와 친구들 in 가위박물관 팝업전시 · 마술/버블/별문소
- 유쾌한 어린이 마당놀이 :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즐거움의  
 팍팍한 가을

**10.3.(목)**

- 세계최대 홍삼락테일쇼 / 16:00
- 개막주제공연 / 18:30
- 축하공연, 불꽃놀이 / 19:00

**10.4.(금)**

- 응답하라, 홍삼콘서트 OST 가을음악회 / 19:00

**10.5.(토)**

- 진안고원트롯페스티벌 / 17:00
- 주현미, 서지오, 김수찬, 김태연, 박군, 별사랑, 미스김

**10.6.(일)**

- 폐막공연 / 18:00



**진안홍삼축제**

빠져나올 수 없는 진안홍삼만의 프로그램!

- 세계최대 홍삼락테일쇼 · 각종 홍삼/인삼 관련 체험 · 어린이놀이터
- 진안홍삼킹덤을 지켜라!(미로찾기, 낚시체험, 명상휴식, 플로깅체험)
- 진안홍삼을 알고싶다면? [參,參한 주제관]에서 오감만족체험!

주최: 전주시, 진안고원, 진안농협, 진안향토문화재단, Kwater

주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진안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문화재단, 진안농협, 진안향토문화재단, Kwater

www.jinan.go.kr/festival  
문의처\_063)430-2391~3

